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식품산업 육성·새만금 개발 가속화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후 전북 첫 방문

익산 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신한만 등 찾아

김관영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안  
국가예산 반영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 정한울 익산시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은 기회의 땅이자 가능성의 땅입니다. ‘새만금은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을 방문하면서 페이스북에 작성한 말이다.

한덕수 총리는 3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행정을 가졌다. (관련기사 7면)

방문에 앞서 한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산업에 바이오, IT 등 신기술을 결합한 식품산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는 높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산업이 미래유망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첫 일정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성주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 김수홍 의원, 이용호 의원,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지역 현안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이 국가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전북 익산에 있는 전국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식품기업과의 현장 소통 식품패키징센터 참관, 신단시찰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식품산업 발전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후 현장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청년창업자를 비롯한 식품기업 대표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식품기업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식품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국가식품클러스터 교통여건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어서 방문한 식품패키징센터에서

제품 유통 과정 중 발생하는 포장쓰레기 및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 사례를 직접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최근 식품산업에 바이오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식품기술(푸드테크)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단계 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단계 사업 분량들이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어 2단계 확장이 필요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안에 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반영되어있는 만큼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의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후, 한 총리는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김관영 도지사,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등과 내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 일대를 헬기를 타고 둘러보고, 새만금 33센터, 신한만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신한만은 새만금을 전세 계로 연결하는 국제물류의 관문인 만큼, 2023년 2선석 완공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새만금 신한만이 활성화 되도록 배후도시의 조기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태풍 등 현장 작업여건이 어려워 질수 있으므로 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포함된 만큼 국제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려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매립과 국제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다부처 사업이므로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조정·지원해 주기를 건의하고, 전북도는 정부와 발맞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한덕수 총리님의 지역 방문이 전북의 식품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 기대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된 사업들은 전북도민과의 신뢰와 약속이 담겨있는 만큼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했다. /김경수 기자

8월 크고 작은  
체육행사 ‘풍성’

임실서 중고교 사격  
장수서 전국승마대회  
군산 비응도서 해양  
스포츠 철인3종 등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8월에 크고 작은 체육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먼저, 임실군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46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사격대회가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는 3~11일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수군에서 펼쳐진다.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철인3종 경기는 11~14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 비응도 일원에서 진행되며, 12~14일 부안군에서는 제4회 부안군수기 전국남여중도대회가 예정 돼 있다.

또한 제41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는 12~17일까지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열리며, 제51회 전국학생검도대회는 14~16일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익산시 일원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5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탁구대회가 20~28일 고창군에서 펼쳐지며, 익산 아쿠아BIOM챔피언십 시리즈대회와 전국대학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도 27일 각각 익산과 순창에서 열린다.

특히 체육 영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체육영재선발대회가 오는 22일 예선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임실군에서 펼쳐지며, 스포츠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스포츠안전캠프는 9~12일 부안군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제19회 전국민간대회와 제39회 전북도지사기 남녀 불링대회, 그리고 제20회 전라북도지사기 시도대항테니스 대회 등도 펼쳐진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내 양식장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유관기관(도·시·군 수과원) 간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양식장을 선별해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으로 어가 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고수온피해 예방책 이행, 어업피해 제로화

도, 도내 양식장 관리 '총력'

도내 양식장은 천혜양식이 121건 443ha, 내수면 양식은 790건 348ha으로, 여기서 지리는 어·패류 양식생물은 여름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용존

산소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 및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 감염과 함께 대량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북도는 양식장 고수온에 대응이 높은 저하수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고수온·폭염 직

접 대응 물품인 산소발생기·차광막·액화산소공급기 공급 등 총 3개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8% 이상의 대응장비 등을 지원 완료했다.

고수온·폭염 발생 시 양식어가의

대응요령으로는 패류양식장(바지락 등)의 경우 어장의 패류 조기 채취로 적정 밀도 유지 등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내수면 및 축제식 양식장은 수온과 용존산소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수온 시 지하수 주입과 수차가동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육도구와 수조 주변 및 양식장 통로의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김경수 기자

제20회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희

의회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